

민주도당 공관위의 개혁공천 '전북 지선 승리 원동력'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비롯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등
14개 시도 중 11곳 당선

윤준병 의원 "대선 패배 후
치러진 만큼 힘들었던 선거
변화·혁신의 길 택해"



받던 정읍과 고창에서도 각각 무소속 후보를 이기는 등 14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개혁공천을 통해 지선 승리에 앞장선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결단과 노력이 돋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만큼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선거였다"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인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천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의혹들이 제기된 입지자들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검증에 의해 개혁공천에 앞장섰다.

송곳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일부 입지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

면서 민주당 대 무소속의 경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이 무소속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정치의 세대 교체와 함께 정치개혁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에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선택했다"며 "기득관에 기대 편히 가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과감히 내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등이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지역발전과 민생 회복의 적임자로 새롭게 선택을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지역회합을 이끌어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정읍·고창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당선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전북선관위 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비례대표 전북도원으로 당선된 당선인들을 비롯해 전북선관위 위원, 당선인 가족,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했다.

"도민 성원 부응 못해 죄송"

국힘 도당, 전북 지선 패배 관련 "더 뉘겠다"

6·1 지방선거를 마친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등 전북도당이 도민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크게 부추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희망을 보았으며 더 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도민 대다수의 마음을 얻기엔 제가 크게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선거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는 "하지만 저에게 지난 대선때보다 3.5%나 많은 17.9%의 지지를 보내주셨고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도광역과 전주, 군산, 익산에서 모두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게 됐다"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조배숙 후보는 "이는 국민의힘이 전북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에 희망의 씨앗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자성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는 전북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선거를 총괄한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황폐해진 당의 복원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총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30여년 만에 지역구에서 의원을 탄생시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날 비례 당선자들과 함께한 국힘 전북도당은 당을 쇄신하는 데 계속 기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역 혁파와 전북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뉴스

도선관위,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자 검찰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잼버리 야영지 안내 '카카오맵'으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카카오와 공식 후원계약 체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야영지 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로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남궁훈)를 선정하고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원회는 그간 8.8km 규모로 조성되는 잼버리 야영지에서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미련하고자 카카오측과 협의해왔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을 통해 참가자 및 방문객들에게 잼버리 야영지 내 주요 시설물 위치와 이동경로를 포함해 각 시설물의 운영시간 등 부가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회 개최 전과 대회 기간동안 카카오맵 내

에 잼버리 행사를 소개하는 홍보 배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번 후원계약 체결로 잼버리 공식 로고와 엠블럼 등을 통해 각 시설물의 운영시간 등 부가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회 개최 전과 대회 기간동안 카카오맵 내

▶▶ 시·군 단체장 당선 소감

"미래행복도시 완주 이뤄낼 것"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미래행복 도시 완주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때 보다도 박찬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영광스런 승리를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승리는 새 시대를 여는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이고 새로운 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다만 당선인 기쁨보다는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선택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 역시 선거기간에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선거를 시작할 때 군민 여러분에게 발표했던 출마 선언문의 초삼대로 낮은 자세



로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하지 않았든 간에 모두의 따듯한 질책과 충고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준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다 바친다는 각오로"

심민 일실군수 당선인

일실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일실군 발전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군민의 승리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로써 거대 야당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온갖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공작 등 혼탁한 선거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첫 3선 군수가 되었다는 데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현명하신 군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결코 실망하지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일실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생각하며 저의 마지막 남은 여생 다 바친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두 후보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군정수행에 있어 좋은 동반자들과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안들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 섬길 것"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먼저, 현명한 선택으로 저 심덕섭을 뽑아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도 가슴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고비 때마다 늘 저와 함께 해준 저의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현재, 참채와 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고창을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들라는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고창군민들이 심덕섭을 좋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민선7기 군정에 대한 심판의 결과



로 저 심덕섭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유념하여, 늘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참된 일꾼 소통하는 군수, 면민의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광역의원 당선자 명단

*정당 기재 - 민: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정: 정의당, 진: 진보당
**소속 정당별 색은 명 색에 따라

선거구	이름(나이, 정당)
익산3	윤영숙(51, 민)
	염영선(56, 민)
	전용태(53, 민)
정읍2	윤정훈(52, 민)
	오은미(56, 진)
진안	김슬지(36, 민)
	장연국(54, 민)
무주	이수진(53, 국)
	오현숙(53, 정)
순창	김슬지(36, 민)
	장연국(54, 민)
비례대표	이수진(53, 국)
	오현숙(53, 정)

6월 1일 기준 미확정 후보·비례대표 위주